

**원희룡 장관, “제2경인고속도로 재개통,
방음터널 안전소재로 신속히 교체 추진”
- 16일 제2경인고속도로 재개통 준비 현장점검 -**
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16일 오후 2시 30분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재개통 준비현장에서 그간 복구공사 경과 등을 보고 받고 재개통을 위한 안전조치 현황을 직접 점검하였다.
 - 제2경인고속도로의 삼막IC부터 북의왕IC 구간(7.26km)은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방음터널 화재사고 이후 차량 통행을 제한하였으며, 안전점검, 복구공사 등을 거쳐 금일 오후 5시 재개통한다.
- 제2경인고속도로를 운영하는 민자법인은 화재 구간에 대한 긴급안전 점검을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복구공사를 진행하였으며,
 - 비상대피로를 확보하고, 소화장비를 50m 간격으로 배치하는 한편, 우천시를 대비해 고휘도 차선으로 도색하는 등 통행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재개통한다고 밝혔다.
- 원 장관은 “해당 구간은 평소 통행량이 많았으나, 통행이 제한되어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하며, 이번 재개통으로 국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.”라며,
 - “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마지막까지 안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개통할 것”을 당부하였다.
- 아울러, 원 장관은 “지난 2월 2일에 발표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에 따라 전국 PMMA 소재 방음터널 교체를 위한 설계 등의 세부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”이라며,
 - “각 도로관리청과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고속도로, 일반국도는 연내 교체를 완료하고, 지자체도로도 내년 2월까지 교체를 완료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, 방음터널 화재안전성 제고

를 위한 제도개선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”고 밝혔다.

2023. 4. 16.

국토교통부 대변인